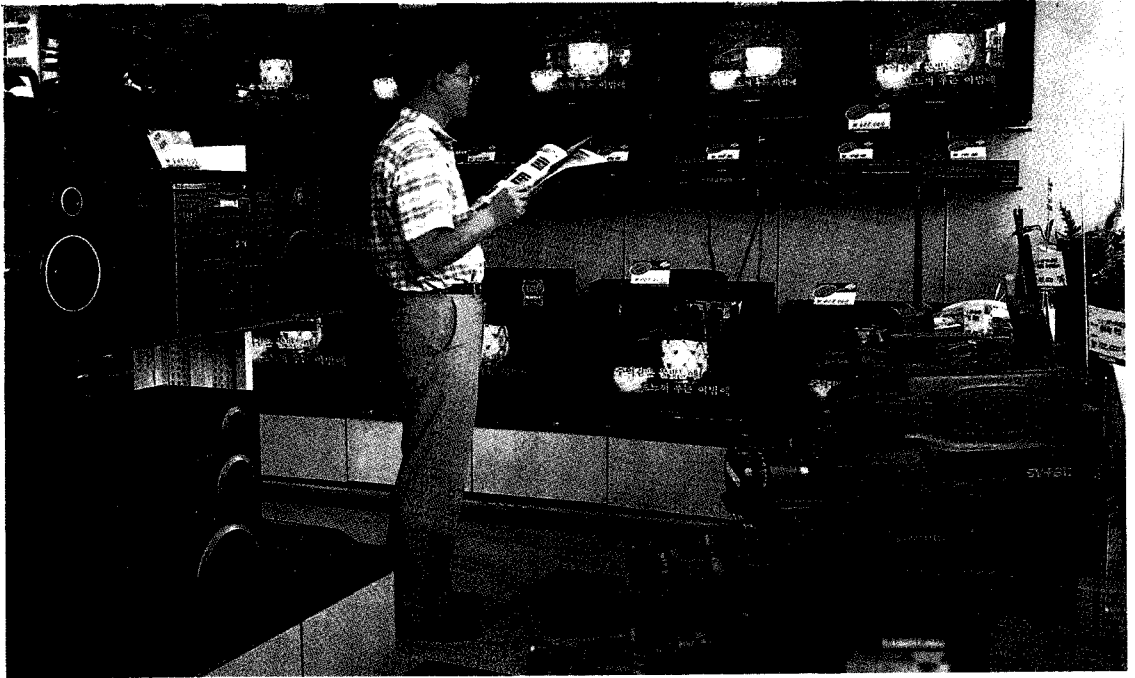


수입선다변화제 전면 해제된다

-하반기부터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금년 7월부터 대형 칼라TV(25인치 이상), VCR, 휴대폰, 전기밥솥 등 4개 제품이 수입선다변화 적용품목에서 해제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작년 7월의 25인치 미만의 소형TV 등 일부 품목과 금년 초 캠코더, 오디오 등 해제에 이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국내시장이 일본에 완전 개방될 예정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동 제도의 전면 해제로 국내 전자제품 시장에서는 일본과 국내 업체간의 시장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을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자료제공·산업자원부

금년 7월부터 대형 칼라TV(25인치 이상), VCR, 휴대폰, 전기밥솥 등 4개 제품이 수입선다변화 적용 품목에서 해제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작년 7월의 25인치 미만의 소

형TV등 일부 품목과 금년 초 캠코더, 오디오 등 해제에 이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국내시장이 일본에 완전 개방되었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지난 78년에

도입된 제도로 최근 우리나라와 5년간 수출입실적을 따져 무역적자가 심한 나라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일본에 대한 지나친 무역적자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까지 사용되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개발화, 자유화 추세가 점차 심화되고 있고,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옴에 따라 점차적으로 줄인후 올 7월에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면 폐지하기로 되어있다.

일본 업체의 움직임 및 국내업체의 대응

● 일본업체들의 움직임

일본 업체들은 다변화해제에 따라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한국시장의 경기회복지연과 국내제품의 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일단 관망하다가 내년 이후부터 한국시장 진출을 본격 모색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칼라TV와 VCR의 경우 국내 3대 가전업체의 영향력이 커 일반 모델

로는 한국 시장 공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정기간 시장조사를 거친 이후 완전 평면TV와 디지털 TV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은 한국의 시장성장속도와 기술적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유망한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양국 제품의 기술사양에 차이가 있고 국내 제품의 시장장악력 등을 감안할 때 당장은 한국 진출시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생산 제품의 일부를 한국수출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기밥솥은 일본 유수의 업체들이 한국시장 진출에 강한 기대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해 왔으며 판매대리점 개설·확대, 직판체제 모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 국내업체의 대응

국내업체들은 시장개방에 앞서 신제품을 집중 출하하여 품질과 성능으로 정면승부를 걸면서 품질이나 성능, 브랜드 등에서의 열세는 가격, 애프터 서비스, 유통망 등을 이용해 만회함으로써 내수시장을 지키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칼라TV는 브랜드 인지도는 열세이나 가격과 A/S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25인치 이상의 완전평면 TV 등 신모델을 출시하고 있다.

VCR은 일본제품과 기술격차가 가장 적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품목이지만, 다변화해제에 대비하여 전력소모가 적고 테이프감기 속도가 훨씬 빨라진 고급제품 등을 출시하고 있다.

수입의존도

품 목 명	공 급		수 요		수입의존도 (수입/내수)
	생산(백만원)	수입(천불)	내수(백만원)	수출(천불)	
칼 라 T V	1,808,587	6,308	457,921	810,689	1.92
V C R	935,144	11,833	147,131	477,541	11.22
휴 대 폰	3,570,170	42,184	1,541,889	1,420,371	3.82
전 기 밥 솥	35,126	45	29,650	4,463	0.21

주) 1. 칼라TV는 18인치 이상

2. '98년 평균환율은 1394.97적용

* 자료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98전자산업통계, 1999.4



▲ 휴대폰은 2000년경 국내 가입자수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수입선다변화제가 해제되더라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의 경우 국내 통신서비스 업체들은 중저가형 일본제품의 수입을 추진중에 있으나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복합기능 휴대폰 등 신제품을 집중 출하하여 시장방어에 나서고 있다.

전기밥솥의 경우 일본 업체들이 첨단 유도가열(IH)방식 밥솥으로 국내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고 가전3사를 중심으로 동 방식의 제품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다변화제도 해제에 대비하여 기술개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핵심기술의 경우 대일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향후 일본기업들이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핵심부품이나 기

술의 이전을 기피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내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부품 및 기술의 도입선을 전환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정부의 대응방안

정부에서는 동제도 해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핵심부품 및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제품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품 표준화·공용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산업피해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민·관 공동의 수입제품 모니터링 체제 강화)하며, 수입에 따른 산업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산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평가사업을 추진(우선 대형TV를 대상으로 수행 중에 있음)할 계획이다.

품목별 수입의존도('98) 및 다변화해제의 품목별 영향분석

- 수입의존도 (앞의 표 참조)
- 다변화해제의 품목별 영향 분석

25인치 이상 대형 칼라 TV에 대한 수요는 보급률 포화(약 160%)로 대체수요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5인치 미만의 소형은

정부에서는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해 나갈 것이다. 핵심부품 및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제품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품 표준화·공용화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산업피해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민·관 공동의 수입제품 모니터링 체제 강화)하며, 수입에 따른 산업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산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평가사업을 추진(우선 대형TV를 대상으로 수행 중에 있음)할 계획이다.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대형 TV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5인치 미만 소형TV의 경우 다변화해제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해제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

칼라TV는 점차 대형화, 멀티미디어화, 디지털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 진전됨에 따라 대체수요의 급증 가능성도 있다.

일본제품의 품질경쟁력, 일본산의 브랜드 인지도와 일반인의 일제선호 등의 요인으로 다변화해제 초창기는 일본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대형TV의 주요 핵심부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아 이를 무기로 일본업체들의 핵심부품 공급 및 기술의 이전을 꾀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2001년부터 우리나라가 지상파 디지털TV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므로 우리제품과 일본제품의 국내시

장 쟁탈전은 과도기적 상황일 것으로 전망되며, 디지털TV 분야에서도 우리가 품질과 기술에서 일본과 대등하고 제품출시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대형 디지털 TV분야에서는 우리제품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VCR은, 국내 VCR시장은 보급률이 한계에 달하면서 신규수용보다는 대체 수요에 의존하고 있다.

VCR의 설계와 제조 관련 기술은 일본수준에 접근해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나 고기술, 고기능 제품의 시장침투 가능성이 있다.

캠코더, 비디오, CDP, DVD 등 대체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경우 VCR시장의 성장률은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금년부터 한국으로부터 다량의 VCR을 OEM공급 받고 있는 상황으로 다변화가 해제되더라도 일본제품의 국내시장 침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디지

털VCR 등 고기능 제품분야에서는 일본제품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휴대폰은 국내 휴대폰의 가입자가 2000년경, 2,000만명(현재 1,700만명)을 넘어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신규수요와 교체수요분에 대해서 브랜드와 디자인 등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일본제품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기밥솥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제 밥솥과는 다른 방식의 압력밥솥을 선호하고 시장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 가능성도 크지 않아 일본제품의 내수시장 잠식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소비자의 일본제품 선호도가 높아 일본제품 유입이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생산기반의 위축도 우려된다.